

올 가을 전주에서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연다

시, 대한체육회로부터 개최지 최종 확정돼... 10월 30일부터 3일간 전국 172개 클럽 5000여명 참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 경기 펼쳐

전국의 스포츠클럽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스포츠 문화대전이 올 가을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18일 대한체육회의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72개 공공스포츠클럽 5000여 명이 참여해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전주에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역 공공 스포츠클럽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

류를 증진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진행돼왔다. 시는 이번 유치로 2016년 1회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시는 교류대회 유치를 확정함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시는 올림픽이나 전국체전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 기반을 두고,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문화대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상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시는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격조 높은 교류대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전주의 역량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약 15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입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를 방문해 주시는 전국의 스포츠인들이 그간 갖고 있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홈런 치면 車?' ... MLB, 터커 홈런에 주목

KIA 홈런존 이벤트로 차량 선물받아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이 KIA 타이거즈 프레스턴 터커(30)의 홈런을 주목했다. 터커가 대포 한 방으로 자동차를 경품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MLB닷컴은 18일(한국시간) KBO리그 타자들은 홈런을 치고 자동차를 받는다면 터커의 홈런을 조명했다.

매체는 "일부 경기장에서 정확성을 갖춘 홈런은 또 다른 상을 받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스테이크 등과 관련된 경품이 있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KBO 타자들은

공짜로 차를 노릴 수 있다"고 적었다.

터커는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두산 베어스전에서 4회말 시즌 5호포를 터뜨렸다. 두산 라울 알칸타라의 2구째를 통타했고, 타구는 그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 KIA 홈런존을 직격했다.

기아자동차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우측 잔디석에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다. 바운드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된 차량을 증정한다.

터커는 이 홈런으로 3600만원 상당의 쏘렌토를 풀게 됐다.

/뉴시스

박현경 · 유현주 · 철저한 방역... 한국여자프로골프 전세계 '이목집중'

2020시즌 KLPGA 챔피언십 성료

철저한 방역에 초점... KLPGA챔피언십 박현경 우승, 유현주 화제물

44개국 생중계 · 역대 최고 시청률... 코로나 이후 세계최초 회 '성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골프계가 사실상 모두 멈춘 5월 셋째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2020시즌 국내 개막전인 제42회 KLPGA챔피언십을 진행했다.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KLPGA챔피언십은 순탄 화제를 낳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끝난 이 대회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후 열린 사실상 첫 대회였다. KLPGA의 전통있는 메이저대회로 예년에도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올해는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가 모두 중단된 선인한 가운데 KLPGA 챔피언십은 국내외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평소 KLPGA 투어를 소개할 때 우승 소식 정도만 짧막하게 전했던 해외 골프 전문 매체들은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사를 팬들에게 제공했다. 박성현(27·솔레이), 김세영(27·미래에셋), 이정은(24·대방건설), 이보미(32·노부타그룹) 등 한국과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의 가세는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취재 열기는 꽤 뜨거웠다. 박성현은 첫 날 라운드를 마친 뒤 "1번홀부터 갤러리처럼 많은 기자들이 있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우려했던 방역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대회를 주관하는 KLPGA와 대회장인레이크우드CC측은 흥행과 방역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모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후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시설 방역과 5성급 특급 호텔 수준의 선수라운지 제공을 위해 1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덕분에 모든 선수들은 연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급 라운지 공간인 '어반 레인지'를 제공 받았다.

입구에는 국내 최초로 워크스루(Walk through) 특수 UV 살균 시설이 마련됐다. 해당 시설에만 1000만원 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KLPGA 관계자는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다음 대회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박현경이 17일 오후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2회 KLPGA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유현주가 17일 마지막 라운드 18번 홀에서 파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회를 준비했다"며 "선수들과 취재진, 대회 관계자들이 모두 협조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대회 중반에는 유현주(26)가 중심에 섰다. '미너 골퍼'로 잘 알려진 유현주는 포털 사이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포털사이트 급

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은 물론 일본 외신에도 크게 소개됐다.

나훈의 레이스에서 가장 빛난 별은 박현경(20)이었다. 박현경은 마지막날 5언더파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데뷔 2년 만에 생애 첫 승을 달성했다.

박현경은 우승이 확정되자 자신을 뒷바라지 해준 아버지와 포옹으로 감격을 누렸다.

영국 텔레그라프는 "(코로나19가 참궤한) 현 시점에서 포옹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감정에 대해 이견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매체는 또 "선수들은 (우승자에게) 정미꽃잎을 던지는 축하로 규정을 준수했다"고 소개했다.

안전과 흥행을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은 시청률 대박으로 귀결됐다.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에 따르면 SBS골프가 14일부터 17일까지 생중계 한 KLPGA 챔피언십 평균 시청률은 0.64%(이하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로 집계됐다. 42년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다.

챔피언즈 박현경, 임희정(20), 배선우(26)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오후 3시20분에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607%까지 치솟았다.

이번 대회는 호주 FOX SPORTS, 캐나다 CBC, 일본 SKY A,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구촌 44개국에 생중계 됐다.

미국 NBC Golf는 '골프센트럴'에서 하이라이트 KLPGA 챔피언십을 방영했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